

원희룡 장관, 모빌리티 혁신 위한 글로벌 소통행보 이어가다

- 미국 모셔널社 CEO 다시 만나 자율주행 상용화 실현시킬 세부방안 모색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9일(목)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제회의실에서 미국의 자율주행 전문기업인 모셔널(Motional) 최고경영진과 만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논의하고 자율주행 상용화를 실현시킬 세부방안을 모색하였다.
- 이번 면담은 지난 1월 7일(현지시간) 원 장관이 국제전자박람회(CES, Consumer Electronics Show) 참관을 계기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셔널 사무소를 방문한 지 약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진 두 번째 만남으로, 칼 이야그네마(Karl Iagnemma) 모셔널 CEO의 답방요청에 의해 추진되었다.
- 모셔널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그룹과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인 미국 앵티브(Aptiv)의 합작을 통해 설립(20.3월)된 자율주행 전문기업으로,
 -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중심으로 아이오닉5 기반의 호출형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시범 제공하고 있으며, 올해 안으로 무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.
 - 원 장관은 지난 1월 방문 시 모셔널의 기술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호출형 자율주행 택시 시승기회를 갖는 등 글로벌 자율주행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기술수준을 진단해보고 국내 산업의 성장 지원과 자율주행 분야 국제공조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.
- 이번 면담 자리에서 원 장관은 “미국에서 못다 나눈 자율주행 관련 규제현황, 국제 협력방안 등 보다 폭넓고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기를 희망한다”며, 칼 이야그네마 CEO를 비롯한 모셔널 최고경영진을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하였다.

- 이에 칼 이아그네마 모셔널 CEO는 미국 내 자율주행 규제현황을 직접 브리핑하고, 그간 미국·싱가폴 등 다양한 규제환경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실증하면서 얻은 진솔한 경험을 공유하였다.
- 원 장관은 “규제가 기업의 혁신과 실험에 장애물로 작용해서는 안 되며, 오히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서 규제를 포함한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”고 화답하면서,
 - “그간 기업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왔으며, 정부규제가 국민안전을 확보하면서 기업 활동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철저히 기업 수요에 맞추어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궁극적인 정부 역할”이라고 밝혔다.
- 원 장관은 자율주행 발렛파킹, GTX와 자율주행의 연계를 통한 라스트마일 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할 아이디어를 모셔널 최고경영진에게 직접 제시하면서,
 - “한국의 현재 제도 환경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물을 것이 아니라,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혁신을 하고 싶은지를 알려주면 정부는 파격적인 규제혁신으로 이를 적극 지원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“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는 성장의 잠재 가치가 큰 만큼 불확실성도 큰 영역으로, 국제사회 리더들의 협력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 네트워크 구축에 몰두하고 있다”며,
 - “상반기 개최 예정인 APEC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하는 한편, 모빌리티 분야 ‘국제협력체계 구축전략’을 수립하여 新모빌리티 정책의 국제공조를 더욱 적극적으로 선도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2023. 2. 9.

국토교통부 대변인